

사회복지재단
승가대 니르바나봉사단
아기부처들의 봄꽃 나눔이



중앙승가대 니르바나봉사단 스님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장애아동들과 봄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이 신일어린이집 김원하 어린이와 함께 두부 만들기 체험장에서 별 모양 두부를 함께 만들고 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랜드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오 스님, 중앙승가대 니르바나봉사단 스님들, 아나올·연꽃·반야·신일·사당어린이집 교사들과 장애아동들의 모습.

장애는 불편일 뿐... 지금 여기서 더 큰 꿈 꾸요



니르바나봉사단 스님이 직접 만든 두부를 훑 흘리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과천 서울랜드에 선녀가 내려온 듯 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봄꽃이 벅차오르게 피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서울랜드에서는 봄꽃과 함께 스님과 장애인들의 웃음꽃도 피었다.

스님들이 과천 서울랜드에 유치원가방을 메고 들어섰다. 회색 승복에 노랑 빨간 가방이 재미있다. 가방을 멘 스님의 손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온나 온나 스님 손 놓치면 안된다 카이~”

서울랜드의 놀이기구를 본 신일어린이집 김원하 군이 스님 손을 놓고 마구 뛰어가자 범성 스님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김군을 불렀다. 스님의 외침에 김 군은 이내 돌아와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들은 중앙승가대 니르바나승가봉사단(회장 해강) 단원들이다. 스님들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마련한 ‘아기부처들의 봄꽃 나눔이’에 일일 봉사단으로 참여했다. 스님들은 여느 유치원 교사 못지 않은 다정함으로 장애 어린이들을 보살폈다.

반야어린이집 주지인 원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봉사자가 스님이라고 해서 더 믿음이 갔다. 우리 아이들이 어는 봉사단 보다 스님들을 잘 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아나올·연꽃·반야·신일·사당어린이집에서 온 30여 장애아동과 중앙승가대 니르바나승가봉사단 스님, 지도교사 등 90여 명이 참가했다.

자선 스님은 “아이들 덕분에 봄꽃 구경 실컷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런 스님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은 스님들의 품에 안겨 평화로워보였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스님 손을 놓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표정으로, 느낌으로 행복함을 표현했다. 말갈게 빛나는 햇살에 보석 같은 아이들의 웃음은 더욱 밝게 빛났다.

아나올 어린이집 김연아 교사는 “거동이 불편한 아동이 많아 실의 활동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밖으로 오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니르바나봉사단은 2009년 8월, 중앙승가대에서

현재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은 6월 창립을 앞두고 고문을 위촉한 상태다. 위촉된 고문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삼천사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도선사 주지 해사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범륜 스님, 광주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랜드 나눔이 뿐만 아니라 건강 두부 만들기, 놀이기구, 단체 야외활동 프로그램 등 장애아동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꿈을 불러서 맷돌에 갈고, 물을 끓여 부으면 순두부가 돼요. 거기에 간수를 넣고 기다렸다 틀에 넣고

맷돌을 목에 걸었을 때와 장애인올림픽 휠체어 컬링에서 우리나라선수가 은메달을 땀 때이다. 그때 장애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장애는 불편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장애는 불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했다.

아이들과 스님들은 서로 다정다감했다. 아이와 손을 꼭 붙잡고 가던 혜덕 스님은 “봉사활동에 와서 아이들을 처음 봤는데 벌써 정이 쌓이는 것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온 보선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이 아픈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됐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장애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더 큰 꿈과 희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의 봉사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등록된 수만 242만 명(2009년 6월 기준)이다. 이들의 95%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4800만 국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미흡하다.

아나올어린이집 이해형 교사는 “장애인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선”이라며 “장애인이 ‘보통 국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Zoo21@buddhapia.com

“스님이란 함께여서 더 즐거워요”

니르바나승가봉사단 6월 창립... 봉사 먼저

도반들과 담소를 나누던 해강 스님이 스님들로만 구성된 봉사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구성했다.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스님들은 뜻을 모아 창립위원회를 결성했다. 해강 스님의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하자”는 뜻이 서로 통했다. 니르바나승가봉사단이 태동한 순간이었다.

해강 스님은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현실에 다가 갈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모임을 결성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스님들이 응집력 있게 움직여야 재가불자의 이타행동에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꼭~ 누르면 두부가 돼요. 두부를 다 만들면 만세를 외치세요.”

두부 만들기 체험장 교사들이 간수를 넣는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서 두부 만들기는 순조로웠다. 아이들은 하트, 별, 동그라미 등 원하는 틀을 선택해 두부를 만들었다.

스님들과 아이들은 어느새 친해졌는지 아이들은 스님의 품에 안겨 두부를 먹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는 라디오 공익광고에서 “지난 겨울 두 번의 눈물을 흘렸다. 동계올림픽에서 금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못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이 사람아!

나는 꿈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눈을 닫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천재주부리면 꿈이야 꿈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대표: 범선 원광식
(종묘원장원장, 대한민국의 명장)

●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년 함곡리 406-28 Tel:043-536-2581